

탄자니아 아이들이 즐겨먹는 음식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탄자니아 사람들은 옥수수, 콩, 밀가루로 만든 요리를 주식으로 합니다. 밥, 국, 여러 가지의 반찬과 함께 먹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밥과 반찬 한 가지 또는 반찬 없이 요리 한 가지만 먹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탄자니아 아이들이 즐겨먹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꾸꾸 ★★★★★X100

탄자니아에서는 닭고기가 가장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큰 잔치 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입니다. 닭을 통째로 기름에 튀겨 맛이 좋고, 아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우갈리와 쑈쿠마 ★★★★★☆

옥수수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우갈리는 아무 맛이 나지 않아 쑈쿠마(채소)와 곁들여 먹습니다. 겉보기에 백설기와 비슷하며 탄자니아 사람들은 우갈리 힘으로 산다고 할 정도로 평상시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바나나슈투 ★★★★★☆

탄자니아에는 바나나의 종류가 다양해 여러 가지 음식으로 요리해 먹곤 합니다. 특히 조리용 바나나와 고기를 함께 끓여 만든 슈투는 특유의 달콤함으로 맛이 매우 좋아 잔치나 특별한 날에 먹습니다.



필라우 ★★★★★X1000

필라우는 밥에 고기를 넣어서 요리한 음식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먹을 수 없어 잔치 때 즐겨 먹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입에도 잘 맞는 음식입니다. (투마이니 사업장에서 급식으로 제공)



파파티 앤 마하라게 ★★★★★☆

파파티는 기름에 밀가루 반죽을 부쳐서 만든 요리로 한국의 부침개와 비슷합니다. 탄자니아에서 평소에 즐겨먹는 음식이며 보통 파파티와 마하라게(콩요리)를 함께 먹습니다. (아루샤, 뉴비전 사업장에서 급식으로 제공)



마칸제 ★☆☆☆☆

옥수수와 콩으로 만든 요리로 탄자니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에서는 주로 이 음식을 먹습니다. (아루샤, 뉴비전 사업장에서 급식으로 제공)

탄자니아의 아루샤와 엔키카렛 뉴비전 사업장에서는 급식으로 우갈리와 쑈쿠마 또는 밥과 마하라게(콩), 감자, 소고기, 마칸제(콩&옥수수), 투마이니 사업장에서는 필라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식으로는 빵과 밀크티 그리고 우지(우리나라의 미숫가루와 유사함)가 제공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주 5회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과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 1 후원해주시는 결연아동의 성장발달보고서는 2015년 4월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 2 회원님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작성하여 회신봉투에 넣어 보내주세요.
- 3 밀알복지재단에 도착한 회원님의 편지는 번역 과정을 거쳐 2014년 12월에 탄자니아 사업장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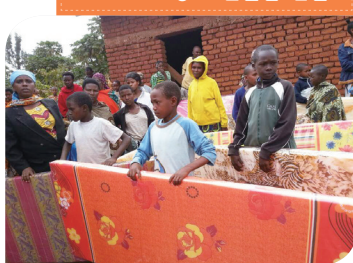


꿈꾸는 새싹들 이야기

지원 사업장 튜마이니

탄자니아의 3개 사업장 중 바바티 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본부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로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매월 1회 사업장에 방문해 결연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제공합니다. 탄자니아의 겨울인 8월에는 일교차가 심하고, 음식을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연아동의 가정 마다 쌀과 담요를 나누어주었습니다. 회원님의 사랑과 관심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이들이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바티 아동 지원물품 전달



울타리 및 정문 건축 완공



지원 사업장 아루샤

2014년 1월부터 시작된 아루샤 지역 뉴비전 학교의 울타리와 정문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전에는 학교를 둘러싼 울타리나 문이 없어 누구나 쉽게 학교에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학교 보안 및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제는 잘 지어진 튼튼한 울타리와 정문 덕분에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에 출입하는 방문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멋진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세요.

후원자에게 편지쓰기



지원 사업장 전 사업장

회원님의 후원을 받고 있는 탄자니아의 결연아동은 일 년에 한번 회원님께 감사편지를 씁니다.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은 먼 나라 한국에서 자신을 후원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한 기간이 짧아 글씨를 쓰는 것이 서툰 아이들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아이들이 회원님을 위해 정성을 담아 작성한 편지와 그림이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매년 아이들의 그림 실력과 글 솜씨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함께 지켜봐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사랑과 응원이 담긴 답장도 보내주세요. (한글로 작성된 편지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영어로 번역되어 전달됩니다.)

유치원 소풍



지원 사업장 아루샤

지난 7월, 아루샤 뉴비전 사업장 150여명의 유치원 아이들이 놀이동산으로 즐거운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연 2회 야외현장 학습을 진행하여 유치원 아이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놀이동산 방문으로 아이들은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을 체험하며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탄자니아의 아이들은 회원님의 지원으로 알찬 구성의 교육 과정아래 폭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꿈을 갖고 더욱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사업장 뉴비전

지난 9월, 지금까지 회원님의 지원으로 열심히 공부해왔던 뉴비전 초등학교 7학년 아이들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다른 학년 아이들이 직접 응원, 콩트, 합창 등의 순서를 준비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이들은 국가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졸업식 이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졸업생 모두 국가고시를 통과해 중학교에 진학하고, 탄자니아의 꿈과 미래를 이끌어 가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튜마이니 토요모임 & 선물 전달



지원 사업장 튜마이니

튜마이니 사업장에서는 결연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회 토요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4~5세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모여 게임, 소그룹 모임, 식사, 선물 전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아이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서로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구입한 선물을 받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전에는 생활에 필요한 식량이나 물품이 전달되었고, 이번 달(9월)에는 특별히 남자 아이들에게는 멋진 와이셔츠를 여자 아이들에게는 예쁜 원피스를 나누어주었습니다. 본인을 위한 옷을 가질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회원님의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삶과 교육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탄자니아에서 온 편지



회원님 안녕하세요. 밀알복지재단 탄자니아

바바티 사업장 활동가 김명식입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아이들이 회원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도울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결연아동들을 위해 지속적인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회원님의 사랑이 아동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바바티 사업장 활동가 김명식 드림

새싹들의 다음이야기

COMING SOON

> 국가고시

2014년 9·10월, 초등학교 4학년과 7학년은 중학교 진학을 위한 국가고시를 치를 예정

> 중간, 기말고사

2014년 10·11월, 뉴비전 학교 초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시 예정

> 유치원 졸업식

2014년 11월 마지막 주, 뉴비전 학교 유치원 졸업식 행사 진행 예정

> 튜마이니 크리스마스 행사

2014년 12월, 튜마이니 사업장 내 교원에서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행사에 친인척이 방문하여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모임을 가질 예정